

■ 민선 5기 이것이 현안이다

영암군

월출산, 관광시설 업그레이드를

민선 5기 영암군의 지역 현안은 민선 4기 '기찬랜드'에 이은 수상 뮤지컬 '영암 아리랑' 공연 사업과 '월출산 로프웨이'를 설치해 국내 최고의 관광단지로 조성해 나가는 것이다.

월출산은 전국 20개의 국립공원 중에서 가장 낙후된 곳이다. 지난 1988년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됐으나 겨울에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뜸 끊기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월출산이 사계절 관광지로서 완성해 나가는 것이 바로 민선 5기의 숙제로 남게 됐다. 이것은 군민 소득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민선 4기 김일태 군수



국내최초로 시도되는 산수뮤지컬 '영암 아리랑' 조감도.

이러한 월출산의 모습이 민선 4기 들어 확 달라지기 시작했다. 국내 유일의 자연계곡형 풀장인 '기

되는 수상 뮤지컬 '영암 아리랑' 공연 사업과 '월출산 로프웨이'를 설치, 국내 최고의 관광단지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산수뮤지컬 '영암아리랑' 공연 사업은 오는 2012년까지 총 사업비 290억원을 들여 월출산을 배경으로 한 사자저수지 일대에 수상 무대시설과 조명시설 관람석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월출산 로프웨이' 사업은 오는 2011년까지 '기 체육공원'에서 천황봉 하단부까지 로프웨이를 설치해 월출산을 전국최고의 관광지로서 탈바꿈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김 군수는 선거 기간 중에 행정부와 환경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해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국비 확보에 발 빠른 행보를 해 왔다.

김 군수는 "본격적으로 민선 5기가 출범하는 7월부터는 영암의 보물인 월출산이 더욱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중부취재본부=이상휴기자 lsh@

국립공원 중 가장 낙후...겨울철이면 관광객 '뚝'

'영암 아리랑' 공연 사업·'월출산 로프웨이' 설치

는 '관광 영암'의 보물인 월출산을 전국 제일의 관광지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기(氣)찬랜드'라는 관광지를 개발했다. 아직 완성 단계는 아니지만 지난 2007년에 개장한 이후 해마다 단계별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사실 '기찬랜드'가 개발되기 전 그곳은 콘크리트 웅수소가 흉물스럽게 시설되고 고물수집상을 비롯한 한 폐가와 수십 기의 묘지가 널렸으며 대밭에는 쓰레기가 넘쳐났다. 게다가 물레 굴을 하던 곳담까지 있어 누가 봐도 국립공원 주변 지역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지역이었다.

찬랜드'를 개발해 월출산의 모습을 바꾼 것이다. 덕분에 여름 한철에만 5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다녀가고, 주변에 '기찬뿔길'과 '가야금 테마파크' 등 다양한 관광지를 조성해 이제 사계절 관광객들로 북적거린다.

그러나 아직도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다. 김 군수의 복안은 '기찬랜드'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광주·전남에서 유일하게 무투표 당선된 김일태 군수는 민선 5기 출범을 앞두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민선 5기에는 국내 최초로 개발

대호 수변공원 '여수토 높이' 책임 공방

〈물이 넘어가는 곳〉

나주시 "28cm 이상 높게 설치돼 폭우 땀 유실 위기"

농어촌공사 "측량 이상없다"…수문 설치 요구 일축

나주시가 12억여원을 들여 조성한 '대호 수변공원'이 장마철 담수량이 늘어날 경우 대거 유실될 상태인데도 사업을 추진했던 나주시와 관리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어 말썽이다.

20일 나주시에 따르면 국비 6억 3000만원과 시비 5억7000만원 등 12억여원을 들여 나주시 대호동에 있는 대호 저수지에 수생식물을 식재, 산책로를 만드는 등 수변공원으로 조성하고 있다.

현재 99%가량 공정이 진행된 '대호 수변공원'은 팔각전망대와 야외무대·잔디광장 등이 설치된 상태로 이달 말 준공될 예정이다.

그러나 '대호 수변공원'은 관리 주체가 한국농어촌공사로 지난 2007년

8월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을 착공해 현재 단계별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곳이다.

나주시는 이 때문에 '대호 수변공원'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 농어촌공사 나주시지사에 여수토(물이 넘어가는 곳) 높이에 대해서 사전 협의를 거쳤는데도 나주시지사가 수리시설 개보수 과정에 여수토를 28cm 이상 높게 설치, '대호 수변공원'이 유실될 입장에 놓여있다는 것.

반면 농어촌공사 나주시지사는 "여수토 높이가 당초 보다 높아졌다

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며 "기준점에 맞춰 측량을 해 설치한 만큼 여수토 높이는 변함이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하지만 나주시와 농어촌공사 측이 같이 서로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과정에 조만간 장마철이 닥칠 경우 '대호 수변공원'이 유실돼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가 초래될 위기에 놓여 있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나주시는 지난 14일자로 농어촌공사 나주시지사에 담수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여수토에

수문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한 상태다.

시민 k모(나주시 대호동)씨는 "양 기관들이 갈등을 빚고 있는 사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한 수변공원이 침수될 위기에 놓여 있다"며 "예전에 담수량이 불어나 유실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시지사는 이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자 지난 18일 긴급히 해당 여수토 높이를 60cm 가량 낮추는 공사를 실시, 장마철 담수량이 불어나지 않도록 응급 조치했으나 200mm이상 폭우가 내릴 경우 근본적인 침수 우려는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

강진 문화복지타운 BTL사업 재개

시공사, 남양건설→진흥기업으로 변경

법정관리 등으로 공사가 중단됐던 강진 문화복지종합타운(조감도) 사업이 2개월여 만에 재개됐다.

강진군은 강진 문화복지종합타운 BTL 사업의 대표 시공사를 남양건설(주)에서 효성그룹 자회사인 진흥기업(주)으로 변경, 최근 공사를 시작해 내년 2월 완공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민자유치 방식(BTL)으로 처음 추진된 것으로 지난 2008년 3월 착공했다.

440억원을 투입, 연면적 1만6000여㎡에 건립되는 이 종합타운에는 ▲문화예술 공연장 ▲연극·영화 상영관 ▲북



산물 전시·판매장 ▲재가노인복지 및 취미교실관 ▲평생 학습도서관 ▲청소년시설 등 문화와 복지기능을 두루 갖춘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기존에 흩어져 있던 문화원과 군민회관, 종합복지회관의 기능이 통합되고 청소년 체험관도 새로 건립된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

강진 베이스볼파크 국가대표 전용훈련장 지정

'강진 베이스볼파크'가 야구국가대표 전용훈련장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중국 광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야구국가대

표 선수들이 이곳에서 합숙훈련을 하는 것을 시작으로 청소년과 여자야구 대표팀 등도 강진베이스볼파크에서 훈련을 하게 된다.

강진베이스볼파크는 천연 잔디구장 4면과 국내 최대 실내연습장 등을 갖췄다. 160여 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 등이 완비돼 있어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의 2군 전용구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

'공무원 정보화 경진대회'

화순군 22일 전산교육장

화순군은 직원들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해 22일 군 전산교육장에서 '제10회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경진대회는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는 정보화실용능력을 비롯해 ▲전자문서 편집 ▲프리젠테이션 작성 ▲인터넷정보 검색 등 4개 분야에 걸쳐 90분간 진행된다.

경진대회 결과 최우수·우수·장려 등 모두 3명을 선발해 군수표창과 시상금을 지급하고 수상자에게는 도 경진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한편 화순군은 군민들을 대상으로 7월부터 10월까지 ▲컴퓨터활용 ▲정보검색 ▲엑셀 ▲포토샵 등 무료 주민 전산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부취재본부=정운수기자 unsu@

Advertisement section titled '법원 경매부동산의 딱딱 광고' (Law Court Auction Real Estate's Stiff Advertisement). It contains multiple columns of text detailing real estate auction information, including property addresses, lot numbers, and contact details for various real estate agencies and legal firms. The text is dense and organized in a grid-like format.